

## 농아동의 수화 교육 접근 현황 및 과제 : 농인 당사자 입장에서 탐색\*

원 성 옥\*\*

한국복지대학 수화통역과

권 순 우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김 지 속

한국복지대학 수화통역과

김 선 영\*\*\*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

### 《 요 약 》

---

본 연구는 수화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농인 당사자 관점에서 알아봄으로써 농아동을 위한 수화 교육 접근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대구, 경북 지역 및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농인 6명에게 포커스 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한정적이므로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농아동의 전 생애 기반을 둔 미래 설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부모들은 대부분 농 자녀의 언어를 구어로 선택하고 구화중심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농 자녀를 위한 부모들의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셋째, 이중문화-이중언어접근의 효과에 대한 근거 수집과 홍보가 필요하고, 넷째, 수화의 조기도입을 위한 수화습득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농아동을 위한 수화 교육 접근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주제어 : 농아동, 수화 교육, 이중문화-이중언어접근

---

\* 이 논문은 2013년도 국립국어원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제1저자

\*\*\* 교신저자(cookie-sy@hanmail.net)

## 1. 서론

1960년대 초 William C. Stokoe의 연구 이후 수화가 언어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완벽한 언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으며 청각장애를 보는 관점이 병리적 관점에서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그 패러다임이 변하였다. 이에 수화(이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수화’는 수어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수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임)를 시각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사람들의 언어로 인정하고, 농인을 수화를 사용하는 언어공동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 편에서는 여전히 수화는 보조적인 의사소통 도구일 뿐이라는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농교육에서 농아동의 언어교육은 구화법과 수화법 간의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이중문화-이중언어접근을 지향하며 현재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농아동과 통합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농아동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인공와우를 사용하는 농학생이 많아진 배경에는 인공와우 수술의 기술적인 진보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농 자녀를 둔 부모들은 대부분 의료계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의존하여 인공와우 수술을 결정짓게 된다. 이러한 선택과정에서 부모들은 인공와우 수술 외 다른 대안을 소개받지 못하였으며(곽정란 2010; 박미혜, 서용규, 2004), 심층면담에서 부모들은 인공와우 이외에는 다른 정보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로서는 인공와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작용했다고 토로하였다(곽정란, 2010).

일반적으로 농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선택에 따라 농아동의 언어가 선택되는데 특히 청인부모 대부분은 자신의 언어인 구어를 자녀의 언어로 선택하였고(곽정란, 2010; 곽정란 등 2011; 이한선, 김병하, 2003), 통합교육에 대한 결정 또한 부모의 의사에 따라 이뤄졌다(최성규, 김수향, 2011). 즉 농자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화중심으로 교육을 받게 되며 일반학교에 다니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구화교육과 통합교육이 최상의 실체로 이어지길 기대하였지만, 현실은 그들의 바람과는 달랐다. 통합유치원을 다니는 청각장애유아는 초기 적응에서 사회적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보였고(박빛나, 조운경, 2012), 통합학교를 다니는 청각장애학생은 충분히 농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며(최성규, 김수향, 2011), 통합교육환경에서의 소외와 배제로 심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다(박동진, 2014). 청각장애학생의 역통합 현상은 통합교육체도가 본격 시행된 이래 반복되고 있지만(김선애, 최성규, 2009), 실질적인 해결책은 미비한 상태이다.

농인 가족은 청인부모-농자녀이거나 농부모-농자녀이거나 농부모-청인자녀로 구성되며 청인부모-농자녀의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최성규, 2007), 부모가 청인

일 때에 구화중심으로 교육하는 경우가 많다. 수화를 사용하는 농인이 가족구성원인 경우에 수화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 유무에 대한 조사결과(권재일 등, 2009), 총 응답자(1,183명) 중 47.3%가 가족구성원 중 수화를 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게다가 수화를 사용할 줄 아는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응답자 대부분은 수화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준은 아니었다. 수화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이 변한다면, 굳이 구어교육에만 매달리지 않고 수화교육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변화의 중심에는 수화가 언어적 지위를 갖추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요구된다.

현실 속에서의 농아동 교육은 여전히 구어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중문화-이중언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인공와우를 사용하는 농아동에게도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수화에서 문어로의 언어전이 관점에서 인공와우 기술의 진보에 맞춰 수화 이중언어교육의 도입이 필요하고(Menéndez, 2010), 수화 이중언어 교육기관(6개의 농학교 및 서비스 컨소시엄)의 실제에서 이중언어 교육환경이 인공와우를 사용하는 농아동에게 유익하며(Swanwick & Tsverik, 2007), 이중언어프로그램에 참여한 농아동의 수화 지식이 문어언어기술 습득을 촉진시킬 수 있다(Hermans, Ormel & Knoors, 2010).

그렇다면 이중언어교육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참 많은데 왜 선뜻 이중문화-이중언어교육을 선택하여 실행에 옮기기 힘든 것인지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농인 전문가와 청인 전문가 17명이 현재 스페인의 농 이중언어실제에 작용하는 강점, 약점, 기회 및 위협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한 Munoz-Baell 등(2011)의 연구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다. 약점분석결과, 의견일치가 높은 요인은 완전한 언어환경(예, 정보접근)의 제한이었고, 중간정도의 의견일치를 보인 요인으로는 수화언어를 가르치는 학습자료 부재와 이중언어접근 실행을 위한 교육재정(인적 자원, 교재, 시설 등) 부족, 교육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언어자원(구화 또는 수화)을 언제, 어디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경계 결여 및 교사의 학습목표에 맞춘 지원에 대한 경계 부족이었다. 위협분석결과, 의견일치가 높은 요인은 스페인에서 수화에 대한 공식적인 인식 결함이었고, 중간정도의 의견일치를 보인 요인으로는 이중 언어주의를 반대하는 의료인으로부터 농자녀 가족들이 처음 듣게 되는 반이중언어주의적 메시지로 인한 구화 외 다른 개념과 모델에 대한 제약적인 이해, 인공와우 수술의 확대로 인한 이중언어프로그램이 실시되는 학교에 농학생의 입학 감소, 이중 언어수행에 필요한 인적 자원 확보를 꺼리는 교육당국, 과거로의 회귀성을 띄는 현황, 즉 이중언어모델-학교와 구화-학교의 비교연구로 인한 구화접근 사용증가 등이었다.

농아동의 이중문화-이중언어접근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접근에 대한 소개나 제안 또는 권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으며 접근의 실효성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많지 않다. 이중언어접근에 대한 검증작업을 통해 신뢰롭고 타당한 결과물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연구기반증거들을 명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농자녀의 부

모, 농학생의 교사, 나아가 청인사회 다수의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해질 것이다.

‘어린시기부터 수화를 사용하는 것이 음성언어 습득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농아동의 언어로 구화를 선택하게 만드는 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수화는 농아동의 음성언어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언어가 아니다(예, Davidson, Lillo-Martin, & Chen-Pichler, 2014; Freel, Clark, Anderson, Gilbert, Musyoka & Hauser, 2011; Giezen, Baker & Escudero, 2014; Takala, et al., 2000). 즉 자연 수화의 언어 투입(input)은 음성언어발달에 결코 해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초기 청력손실로 인한 박탈감이 음성언어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Davidson et al., 2014). 그리고 수화에 노출되는 인공와우 사용자 농아동이 수화와 음성단어를 동시에 지각하는 것은 그들의 음성 단어 재인이나 학습에 부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Giezen, Baker & Escudero, 2014). 건청아동의 경우 제1언어습득이 제2언어습득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처럼(Cummins, 1979; Krashen, 1982), 수화(ASL)의 견고한 습득은 영어 학습에 영향을 준다(Mayberry, Lock & Kazmi, 2002).

청각장애학생들이 보다 이른 시기에 수화언어 능력을 발달시켜 그 언어로 자신의 경험을 처리하고 사고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2차 언어인 국어 문어를 발달시켜야 하므로 수화언어 습득을 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원성옥 등, 2013). 또한 수화는 농아동의 언어적 잠재력과 인지적 잠재력을 적절하게 발달시킬 수 있는 언어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화에 대한 완전한 언어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Trovato, 2013).

현재 우리나라는 수어기본법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다. 수화와 관련된 제도, 법, 정책이 마련되어 공고해진다면, 농아동이 어린시기부터 수화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해 줄 것이다. 그릇이 아무리 그럴듯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이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필요 없는 것이라면 쓸모가 없다. 이에 이러한 기본 틀을 세울 때에는 우선적으로 농인들의 경험, 바람, 요구들이 고스란히 담겨져야 할 것이므로 농 전문가들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본다. Mounty(2014) 등은 12명의 농 성인을 대상으로 상호작용적,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하여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농인의 내부자적인(emic) 관점에서 어떻게 그들이 읽기학습을 통해 능숙한 독자로 전이되는 지 연구하면서 내부자적인 관점이 농인 당사자가 언어를 습득하고 학습하는 “고유한 과정(native processes)”에 대하여 총체적인(holistic) 견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화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농인 당사자 관점에서 알아봄으로써 농아동을 위한 수화 교육 접근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 참여자들은 대구, 경북 지역 및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농인 6명이었다. 연구의 목적에 맞는 자료 수집을 위해 농인으로서 현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으며 전문가들이 추천한 13명의 인원 중 인터뷰를 허락한 참여자들로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6명 모두 남자였으며, 참여자 5명은 초등학교부터 고등부까지 모두 농학교에 재학하여 졸업하였으나 참여자 6은 중도청력소실자로 일반학교를 졸업하였다. 학력에서 연구자 1과 5는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나머지 참여자들은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참여자들은 농인 당사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한국농아인협회 지부장 및 수화통역센터장, 농 종교인, 수화언어학을 전공한 농인, 농 통역사였다. 참여자들의 연령범위는 34~50세(평균 42세), 농 관련 경력은 11년에서 30년(평균 17년), 학력은 대졸 2명과 대학원졸 4명이었다. 모두 남자였고 수화 사용자였으며, 이 중에서 연구 참여자 3과 7은 구화도 가능하였다. 참여자 1은 50세로 농아인협회 이사, 농아인협회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농아인협회 지부장 및 수화통역센터장으로 현장에서 28년 동안 농인들을 위해 일해 왔다. 참여자 2는 현재 농통역사로서 35세이며, 특수교육학 전공 으로 박사를 수료하였고, 14년의 경력을 갖고 있다. 참여자 3은 37세의 종교인으로서 석사를 졸업하였고, 교육 및 농 관련 연구 자문위원으로 18년 동안 일해 왔다. 참여자 4는 40세로 농아인협회 지부장 및 수화통역센터장을 거쳐 농인관련 단체의 자문위원 및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참여자 5는 현 34세로 가장 연구 참여자 중 어렸으나 수화언어학을 석사로 전공하고, 현 외국에서 수화언어학을 박사과 전공하고 있는 농수화언어학자로 농아인협회 농통역사 및 사회복지사, 국내외 수화 프로젝트 자문위원으로 11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참여자 6은 56세로 중도청력소실자로 종교인 및 청각장애인 복지관 관장으로 역임하고 있으며, 교육 및 저서 출판, 자문위원으로 26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국립국어원의 국고보조금으로 수행된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중의 일부로 수화 환경 현황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건청 전문가 및 농전문가 회의, 초점집단 인터뷰와 공청회를 통해 분석된 내용 중 내부자적(emic) 관점에 기초하여 농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서울, 경기 지역 2집단과 대구 경북지역 1집단으로 구분하여 2013년 12월 1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1) 예비 면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본 연구는 농아동의 수화교육에 대한 국내외 연구 문헌을 수집하여 분석한 후,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특수교육과 교수 1명, 국어국문학과 교수 1명, 인간재활학과 교수 1명, 수화통역과 교수 2명, 국립국어원 어문 연구실장 1명, 청각장애 특수학교 농인 교사 1명, 농인단체 소속 농인 2명 등 총 9명의 전문가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질문 개발은 포커스 그룹 리서치(Greenbaum, 2001)의 절차에 따라 질문의 원칙을 숙고하고, 연구문제를 명확히 한 후, 공동 연구원들 간 질문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질문의 초안을 만들었으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여러 차례 질문을 검토한 후 최종 질문을 개발하였다.

### 2) 포커스 집단 인터뷰

선행연구들은 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어 농인 당사자들의 심층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특히 정책의 방향을 제안한 연구들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필요로 하므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보다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포커스 집단 인터뷰 방법을 활용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포커스 집단 인터뷰는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확장시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심층면접에 비하여 참여자가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농당사자들의 의견을 도출하는데 긍정적인 방법일 수 있다.

포커스 인터뷰는 이수희 등(2008)이 사용한 Krueger(1998)의 지침사항을 참조하여 4단계(연구시작시기, 포커스 그룹 도출, 포커스 그룹 직후, 전체 포커스 그룹 종료 후) 지침 사항에 따라 진행되었다.

1단계, 각 참여자에게는 미리 전화나 메일로 개별적으로 의뢰를 하고, 인터뷰 2주일 전에 인터뷰와 관련된 안내 메일을 보냈으며, 인터뷰 하루 전에 전화로 참석 여부를 재확인 하였다. 또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안내문에 크게 9개 문항의 내용을 사전에 생각해보고 오도록 안내하였다.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질문들을 함께 제공하였다. 2013년 12월 1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본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단계, 인터뷰 진행은 미리 계획된 인터뷰 계획에 따라 진행하였고,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

도록 ‘ㄷ’자 형태로 의자를 배치하여 물리적 환경을 수정하였다. 농인들을 고려하여 수화통역사와 속기사를 배치하였으며, 인터뷰에 대한 개괄적 안내 및 모임에 대한 감사 인사, 연구원 소개, 인터뷰를 하게 된 연구 배경과 인터뷰 진행 지침 안내를 하였다. 인터뷰 참여자의 일반사항에 대한 간단한 질문과 인터뷰 내용을 녹화 및 속기록으로 작성하는 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 또한 속기 자료 및 녹화된 정보는 연구를 위한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었고, 모든 내용은 녹화되었다. 인터뷰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자 1은 사회자 및 중재자(mediator) 역할을 담당하였고, 연구자 2는 필요에 따라 토론내용과 관련된 추가 질문을 추가하거나 참여자 의견에 대해 확인하고 점검하였다. 또한 사회자는 제시된 질문을 하여 참여자들이 질문에 응답하도록 진행하였으며 연구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자유로이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진술하도록 격려했다. 3단계, 포커스 그룹 종료 직후에는 토의의 가장 중요한 주제와 아이디어, 기대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 다른 포커스 그룹과 다른 내용, 보고에 포함될 내용, 보고서에 포함할 중요한 인용문,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 다음 포커스 그룹에서 변경해야 할 내용, 기타 토의 중 모호했던 부분이나 다른 해석이 가능한 부분, 준비나 진행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디브리핑(debriefing) 노트를 정리했으며, 속기록 및 녹화가 잘 되었는지 점검하였다. 매 회 끝나면 속기록 및 현장노트(포커스 그룹 진행 중의 기록), 녹화 동영상을 이용하여 포커스 그룹 시행 중 내용 및 직후의 디브리핑 내용 등을 전사(transcription)하고, 의미 있는 진술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그 자료는 다음 인터뷰에 반영하였다. 4단계, 전체 포커스 종료 후 분석과정에서는 다양한 포커스 그룹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과 형태 즉 참여자가 사용한 용어의 의미, 맥락, 내적 일관성, 의견의 빈도, 의견의 규모, 의견의 강도, 반응의 특이성 등을 찾고자 하였다. 즉, 자료 분석의 첫 단계에서는 전사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자료를 코딩했으며, 다음 단계에서는 연구자들 간의 지속적인 비교과정을 통해 비슷하게 명명한 개념들을 모아 범주화하고 더 큰 범주로 통합하면서 속성에 따라 분류했다. 범주화 작업을 할 때는 연구 시작시기에 계획한 연구 목적에 비추어 해석을 시도하고 결과를 정리하였다.

### 3. 자료 분석

포커스 집단 인터뷰에서 농아동 수화교육에 대한 농당사자들의 의견은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하였다. 이에 그들의 의견을 좀 더 심도 깊게 듣기 위해 집단 인터뷰를 마치고, 서면으로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내부자적(emic) 분석은 참여한 당사자들의 신념, 사고 및 태도 같은 사고방식에

대해 문화적으로 특정적이며 이 분석에서 지역적 지식(local knowledge)과 해석(interpretations)은 심리차원과 행동차원에서 메시지를 전달할 참여자의 관점에서 나온다(Xia, 2010).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내부자적 관점에 중점을 두고 농 참여자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재분석하였다. 농 참여자들로부터 산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재조직화한 다음, 연구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유의미한 진술을 추출하였으며, 추출한 진술 중에서 중복된 내용을 삭제한 다음, 범주화하였다.

### III.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수집된 면담 자료를 내부자 관점에 기초하여 분석한 결과는 네 가지 주제로 묶었다. 주제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한 농아동의 전 생애 기반 미래 설계

부모들이 의사로부터 처음 자신의 자녀가 청각장애라는 사실을 진단받았을 때 그들은 충격에 휩싸이게 된다. 이러한 감정상태에서 부모들은 대부분 의료차원에서 제공되는 정보만을 접하게 된다. 청각장애에 대한 조기 선별 및 진단 체제의 강화, 인공와우 수술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조기 시술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인공와우에 대한 부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곽정란, 2010). 즉 부모들은 대부분의 경우 인공와우 수술을 소개받고 이를 선택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인공와우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받게 된다면, 부모들은 향후 다른 선택의 고려 없이 음성언어습득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즉 부모들이 인공와우 외 다른 선택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뒤늦게 수화를 배우는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된다고 하였다.

두 번째 수화 배우는데 있어서 요즘 아기를 낳았을 때 청력검사를 무료로 해 주고 있죠, 그렇지? 제 첫째 아들은 1년 후에 청력검사를 했는데 둘째, 셋째는 제가 유료로 돈을 내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들어 보니까 무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무료로 됐다는 것을 못 들었는데 그 이유가 인공와우수술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검사하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인공와우수술로 연계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부모입장에서는 당연히 청인이라고 생각하고 낳았을 때 청각장애였을 때 암담한 시점에서 무료로 인공와우를 하게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아무 정보도 없이 인공와우 수술할 수 있다고 그 길만 안내한다면 수화 교육에 대한 정보는 없이 인공와우 쪽으로만 길러지고 나중에 수술이후에 수화를 배우는 방법도 있었구나 뒤늦게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인A)

농전문가들은 청력검사 후 청각장애로 확정되었을 때 다양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제공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수화에 대한 소개 및 단편 지식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많으나 수화중심교육 및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농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면 검사, 진단, 중재 등 청각장애와 관련된 모든 구체적인 정보가 담긴 사이트가 구축되었으면 하였다.

처음에 태어나서 청력검사 한 후에 처음 시작부터 2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넷에 '수화' 라고 쳤을 때 농인, 청각장애인,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중앙회, 학교 대표, 이런 정보가 많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다 모르니까 정보검색 많이 하는데, 난잡하게 많이 들어 있지만 쓸만한 정보는 없고, 청각장애인, 농인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부모님들이 갈팡질팡 할 수 있어서 정보제공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농인A)

인터넷 아무리 뒤져봐도 수화가 언어발달에 도움을 주는지, 그런 자료는 찾아봐야 있고, 외국자료만 있지 한국자료는 없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수화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수화교육이 장점이나 그 효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었으면 합니다.(농인C)

전문가들은 부모들이 인공와우 선택을 할 때 수화교육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들의 자녀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강미자와 강창욱(2013)은 장애자녀의 미래계획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 60%의 부모가 평생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반응하였다. 즉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장애유아의 평생계획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전문가들은 농아동의 미래를 위해 한국수화의 지위 및 인식을 높이고 수화를 보급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라도 수화교육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보여주고 변화해 가고, 그리고 한국수화를 보급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국사회가 많이 발전됐고, 부모님들의 생각도 많이 변했습니다. 베이비붐시대도 아니고, 보릿고개도 아니고, 지금은 부모님들이 다 젊은 분들이고 사고방식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초를 잘 닦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 20년 후가 되더라도 지금부터 기초 틀을 잘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인D)

## 2. 수화교육의 현재와 농자녀를 둔 부모의 인식 변화

### 1) 농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언어선택

농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농자녀의 언어를 선택하게 된다. 특히 청인부모의 경우 대부분 자신의 언어(구어)를 자녀의 언어로 택하게 된다. 즉 이러한 언어선택은 농자녀의 의지나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곽정란, 2010; 곽정란 등 2011; 이한선, 김병하, 2003).

참여자(농인D)는 구화에 치중된 부모 인식의 문제로 농아동들이 농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청인사회에도 농인사회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학생이 자신의 언어를 선택하고 구어이든 수화이든 농학생이 선택한 언어적 요구에 맞춰 교육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청각장애 청소년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학교생활적응력이 낮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적 지원도 아직 미약하다(권순우, 2004, 2010). 특히 청각장애 청소년 4명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연구한 박동진(2014)의 연구를 통해 청각장애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있어서 많은 경우 자신이 선택하는 것 보다는 부모, 교사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적절한 안내를 받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심적으로 매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언어선택을 부모가 하기 때문이며, 이에 농아동들은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이중적으로 살게 되며,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부모님의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녀들은 앞으로 키우고 싶어 하는 욕심은 이해는 하지만 결국 그 아이들이 많이 상처를 받게 되고, 이중적으로 살게 되고, 완전히 소외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많아요,,,,,,, 농학교 조차 구화중심교육을 하고 있으며, 언어선택에 따라 농학생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인D)

### 2) 구화중심 교육의 한계 및 도전

참여자들은 농학생들 대부분이 현재 구화중심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선택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들이 인공와우 수술을 결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참여자들은 농학교 입학해서도 우선적으로 구화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구화위주의 소통환경이 지배적인 통합교육 상황에서는 구화에 치중된 교육으로 농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 농학교로 전학을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지금 농학교에서 구화학생들, 아니면 일반학교 특수반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언어치료하는 방법을 보면 구화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농인D)

제1언어로 뭐든지 빨리 언어를 갖는 게 중요한데, 구화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상처받고, 고통 받는 케이스는 얘기하지 않잖아요.....(농인C)

예를 들어서 서울 농학교에 입학하면 제일 먼저 유치원 교육을 시작할 때 언어교육(구화교육)에 집중해요.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익숙하다면 일반학교로 전학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학교에 입학해서 수업을 하고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놀다 보면 한계가 오죠. 왜냐하면 6학년 졸업하거나,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농학교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나, 결국에 보면 언어교육의 방법이 틀린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농인B)

이처럼 청인 언어인 구화, 즉 음성언어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모든 농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소통수단은 아닐 것이다. 한 참여자(농인B)가 농아동을 위한 언어교육방법에 대해 고민을 해보아야할 시점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청각장애유아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통합교육 준비를 위한 전환교육을 강조한 오혜정(2002)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다. 즉 농학생들이 통합교육을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가족, 학교 직원,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지역사회 사이에서의 유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기사에서도 보았듯이 청각장애학생에게 리코더 연주를 통한 음악실기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한국일보, 2014.10.30).

참여자(농인D)는 현재 청각장애아동을 위한 규정, 지침과 같은 기본 틀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한국수화 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며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한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농아동을 위한 교육의 틀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보낼까말까, 잘 될까 말까 걱정해요.... 중요한 것은 틀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시행착오가 뭐였냐면 기본 틀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규정이 있었으면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특수교육문제점이 뭐냐면 농아동을 위한 교육에 대한 지침, 규정, 연구에 대한 기본 틀이 없다는 점.....만약에 한국수화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아마도 그런 환경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본법이 꼭 만들어 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인D)

### 3) 농 자녀를 위한 부모들의 인식개선

농인 가족은 청인부모-농자녀이거나 농부모-농자녀이거나 농부모-청인자녀로 구성되며 청인부모-농자녀의 경우가 가장 많다. 특히 부모가 청인일 때에 참여자(농인F)는 농자녀를 키울 때 현실적으로 수화를 자녀의 언어로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고 하였으며, 참여자(농인F)는 부모들이 수화는 나중에라도 배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구화중심으로 교육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청인부모들이 이중언어교육과정에 청각장애유아들을 보내지 않아요,,,,,, 청인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농유치원을 보내겠느냐? 그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인F)

저는 사촌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청각장애예요, 지금은 전혀 수화를 배우지 않고 살아요, 친척이 있어서 명절 때 2번씩 만나는데 할아버지가 수화하는 것을 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부분이 수화는 나중에라도 배우면 되니까 일단 구화로 한다는 게 주된 정보의 접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득이 됐던 거예요, 여기는 한국이니깐 한국어를 먼저 배우고, 그런 논리에 부모들이 다 넘어가요, 수화가 왜 필요한지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설득이 안되요, (농인C)

참여자(농인C)의 이야기는 한국사회에서 부모들을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이처럼 수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수화의 언어 지위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부모들이 농자녀의 언어로 수화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모가 수화를 하나의 언어로 수용하는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기반으로 언어로서의 '수화'지위가 견고하게 다져져야 할 것이다.

농자녀를 둔 부모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참여자(농인F)는 인공와우 수술을 하고 구화중심교육을 받은 농아동, 수화중심교육을 받은 농아동의 10, 20년의 사례가 필요하고, 이러한 근거를 갖고 부모를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최근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성공사례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이중언어교육의 중단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다양한 정보와 선택권을 부모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부모들의 인식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처음에는 수화 싫다고 하고 인공와우가 최고라고 했지만, 뒤에 부대비용과 부작용을 생각하고, 적응도 잘 안 되고, 사례를 묶어서 보여 주면 책임은 누구한테 가느냐? 부모님한테 책임질 수 있느냐? 평생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교육, 농유치원 다 좋지만 그런 것보다 아이를 출산한 부모님들의 인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한국의 10년, 20년의 사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과정을 겪어서

농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의 10년, 20년 사례, 인공와우 수술을 한 아이들의 10년, 20년 사례를 보고, 농 유아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 사례를 통해서 읽어보시고 전문가가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선택권을 주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인식도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인F)

또한 참여자들(농인F, 농인C)은 부모들이 대부분 인공와우 수술을 한 성공사례들만 보기 때문에 수화를 그들의 언어로 선택하여 성장한 농성인의 성공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데 수화중심교육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자료가 없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즉 인공와우 수술의 장단점과 수술 후 장치관리, 중재개입 등과 같은 정보를 충분히 제시하고 장기프로젝트와 연계된 중단연구와 적용 사례를 통해 산출된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농성인의 롤모델에 대한 홍보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하게 정보를 보게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설득싸움에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도 나와 있지 않고, “수화 배워야 돼, 수화가 좋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설득력있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반반씩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갈로뎃 대학교도 있고, 농인으로서 의사, 변호사, 교사도 되는 롤모델이 있기 때문에 ‘아, 나도 잘 가르치면 변호사, 교수 시킬 수 있네’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잘 돼봤자 목사예요. (농인C)

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떤 농인으로서 살아왔던 그 사람의 경험치를 얘기해 줬을 때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런 것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 농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부모들은 청인만 만나고, 성공한 농인으로 자란 케이스를 만날 환경이 없어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인A)

성공한 케이스 몇몇만 얘기하는데 ‘나도 저렇게 키울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이 있는 것처럼 수화도 성공하려면 수화로 성공한 케이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화로 이렇게 했더니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 그렇게 했던 모델 중에 하나가 덴마크에서 농아동 10년짜리 프로젝트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로만 ‘수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료 두는 것보다 그런 프로젝트를 위해서 돈을 따서 성공케이스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농인C)

### 3. 이중문화-이중언어 접근의 효과에 대한 근거 수집 및 홍보

학계에서는 이중언어접근(bilingual approach)에 기초한 농아동 교육을 강조하

면서 여러 각도에서 이중언어프로그램의 적용가능성을 제안해 오고 있지만(예, Hermans, Ormel & Knoors, 2010; Menéndez, 2010; Swanwick & Tsverik, 2007), 이중언어프로그램이 농학생의 어떤 측면을 어느 정도로 향상시킬 수 있는가를 물었을 때 명확한 근거로 제시할 만한 해답을 속 시원히 알려주는 연구들은 많지 않다. 그래서인지 참여자(농인B)는 이중언어접근법을 농학생 지도에 접목하고 싶어도 효과성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구화교육 수화교육의 찬반론에서 벗어나 농아동을 중심에 둔 이중언어접근이 활용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참여자(농인C)는 설득력 있는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논문, 책을 보면 '이중언어접근법'에 대한 논문이 많은데 그게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부모님들은 수화를 못 쓰게 하고, 아이는 수화를 쓰고 싶어 하고 찬반논란이 많은데 이중언어접근법에 대한 논란은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미국 논문, 일본 책들을 많이 읽어봐도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건가? 부모님입장, 아이입장, 누가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잠재능력이 많고, 숨은 능력이 많잖아요, 그걸 인정해 주고, 가능하면 이중언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언어에 대해서 누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조금 더 집중하고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농인B)

단순하게 '수화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 권위 있는 사람이 얘기하고, 외국자료도 대부분 보면 권위 있는 사람이 발표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무나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교수가 얘기하고, 의사가 얘기하고 그런 것처럼, .....수화를 사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농인C)

참여자(농인F)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수화를 알게 되면서부터 책을 읽는 것이 매우 즐거웠고 그 내용도 이해하기 쉬웠는데 특히 선생님의 수화 설명이 내용 이해에 큰 도움 되었다고 하였다. 즉 수화가 한국어를 익히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어 읽기에 동기를 주었고 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농아동을 위한 이중언어 경험들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며, 같은 나라 안에서도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Munoz-Baell, et al, 2011). 여러 나라들 중 스웨덴과 아이슬란드는 이중언어교육프로그램을 법으로 재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이 수화를 인정하는 것은 농아동들의 농문화와 그들의 언어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제가 어릴 때는 너무 어려서 기억이 안 나지만 저희 누나가, 형이 말했는데 학교 입학할 때 까지 완전히 병어리였고, 글자도 모르고, 학교도 안다니고 할 줄 아는 게 없었고, ....., 그런데 1학년 입학 이후에 뭘 배웠는지 아세요? ㄱ, ㄴ, ㄷ? 아닙니다. 색깔 칠하는 것부터 배웠습니다,.....,중학교부터는 기숙사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수화를 배웠고,....., 국어선생님은 풍부한 비수지, 수화를 이용해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잘 배웠죠. 그전에는 글만 봤을 때는 나한테는 이 글이 와 닿지가 않았었어요. 수화와 제스처를 함께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 얘기가 이해되고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농인F)

참여자(농인F)의 이야기는 수화가 결코 언어학습에 해가 되지 않음을 실제 경험을 통해 증명해 준 셈이 된다. 농아동이 청인중심의 언어로 인해 소외감을 덜 경험하도록 그들의 언어에 대해 긍정적인 경험을 늘려나가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신뢰롭고 타당한 이중언어프로그램이 농아동에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효과적이었다는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참여자(농인C)가 제안했듯이 이러한 근거자료들을 농자녀를 둔 부모에게 홍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일 수 있다.

의사 및 전문가들이 인공와우 수술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듯이 이중 언어교육의 긍정적인 측면 및 농성인 모델을 제시하고, 근거자료를 소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마련이 시급합니다. (농인C)

#### 4. 수화의 조기도입을 위한 수화습득환경 구축

최근 농아동을 대상으로 이중언어접근 및 이중언어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수화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다. 앞서 기술한 이중언어교육이 이론을 넘어서 현장 속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장면에 수화를 도입하는 시기가 지금보다는 빨라져야 할 것이며 수화를 언어로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자들(농인B, 농인D, 농인A)은 수화의 조기도입과 수화습득환경 마련을 강조하였다.

농인입장에서는,.....,그런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해서 일반아이들과 뒤쳐지 않게 동등하게 발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그림, 사진을 보여 주고, 시각적으로 습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농인은 시각중심이기 때문에, 한국사회는 청력 중심인데, 시각적으로 집중해서 물건, 콘텐츠가 많이 노출되고, 이것을 통해서 뇌발달에 자극을 주는게 제일 중요한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인B)

어린이집에 매우 이른 시기부터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수화교육을 그 안에 삽입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아를 낳았을 때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제스처로 대화를 시도하잖아요. 제가 언어발달을 할 때 제스처, 몸동작으로 언어발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일찍 어린이집 교육과정에 수화를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농인D)

일반적으로 아동이 언어를 습득해 가는 과정은 매우 인위적이지 않다. 즉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주변의 인적·물리적 언어 환경에 노출되며, 이러한 경험이 반복적으로 쌓이면서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차츰차츰 터득해 나간다. 이러한 견지에서 참여자(농인A)는 농아동들에게도 어린시기부터 수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영유아시기부터 자연스럽게 수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인식하고 수화가 창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임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수화의 조기 노출은 농아동들의 사회성에 영향을 주게 되고, 긍정적인 농문화와 농정체성은 그 자신의 자존감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참여자(농인F)는 농아동들이 집안에만 머무르다 보면 소심해지고, 사회성에도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른 시기부터 통합어린이집에 보내면 초등학교와의 전환도 쉽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웃긴 건 제 아들, 딸들을 교육시키다 보니까 느낌이 수화를 배우는 것을 좀 창피해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뭘 봤냐면 협회에서인가 수화노래 행사가 있어서 유치원 아이들을 다 불러서 수화 공연하는 것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수화를 가르칠 때는 창피해 하는데 유치원 행사할 때는 재밌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 환경이 중요하구나 생각했어요. (농인A)

보통 집안에만 갇혀 있다가 일반아이들을 만나면 소심해 지기 쉽거든요. 그러면 지능도 떨어지고, 어색해 지잖아요. 어려서부터 소통하고 연습을 많이 한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갈 때도 소심하지 않고 소외감 느끼지 않고 능력에 따라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인F)

이렇듯 수화의 조기도입 및 수화환경 구축이 요구되지만, 참여자들(농인B, 농인F)은 막상 매우 어린시기부터 농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도 이중언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없어서 보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즉 체계적인 언어습득환경을 마련해 주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건청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를 위해 인공와우 수술을 하고 구어를 선택한다



고 하더라도 소수의 수화를 선택한 부모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일 것이다.

농아동들도 매우 어린시기부터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농아동을 6개월부터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런 교육과정이 없잖아요, (농인F)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일반아이를 낳으면 6개월 이후에 웅얼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농아동은 그런 표시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인지적으로 수화를, 완전히 수화를 가르치자는 게 아니라 그림을 보여 주고 '사자' 제스처를 보여 주면서 따라 하게 하는 보여주는 영향을 주는 게 '인지적 수화(=공간적 수화)' 를 노출시키는 게 필요한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인B)

참여자들은 농아동을 위한 이중언어 습득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참여자(농인F)는 이중언어접근을 추구하는 거점 어린이집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모든 어린이집에서 이중언어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어렵다면 거점 어린이집(농영아유아가 가장 많은 지역)의 운영을 통해 수화를 선택한 부모와 농아동들이 그들의 교육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래서 전국에 각각의 유치원, 어린이집 안에 농아동을 받을 수 있는 교육 기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점어린이집 같은 거죠, 농인이 스스로 농아동을 가르칠 수 있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서 그 지역의 거주자, 성남이라면 성남 거주하는 유치원과 연계해서 파견할 수 있는....(농인F)

또한 농아동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언어선택권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환경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박동진, 2014). 이와 관련하여 참여자(농인D)는 농학교에서도 구화중심교육을 하고 있으며 언어선택에 따라 농학생들의 욕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하였다. 참여자(농인C)는 농아동들이 기숙사에서 선배들을 통해 수화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걱정하면서 체계적인 수화교육의 실시와 수화를 가르치는 모델이 중요성에 초점을 두어 농성인 모델을 제안하였다. 현재 이중언어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덴마크의 몇 학교에서는 농성인 모델이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Munoz-Baell, et al, 2011). 농성인 모델을 통해 농아동들이 정체성과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요구되며, 농아동을 키우는 청인부모에게는 자신의 자녀를 위해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화보다 수화교육을 먼저 시키는 것이 필요함, 농학교 조차 구화중심교육을 하고 있는데, 언어선택에 따라 농학생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그렇기 때문에 농인들이 처음부터 구화교육을 하는 것보다, 수화교육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수화교육중심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국어는 한국어 교육을 말하는 건데요, 구화교육을 먼저 시키기보다 수화교육을 먼저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농인D)

농 학교 안에서도 수화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쓰기 때문에 수화를 다르게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전승에도 문제가 있고,....., 농성인을 만날 기회가 특수학교자체에서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면 이것들을 연계시켜 주고, 같이 만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농성인들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어른이 돼서 저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다양한 모습을 보여 줘야 내 아이를 키울 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죠, 오로지 말만 시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신화 하나만 믿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농인C)

곽정란 등(2011)은 농부모-농자녀 부모들을 대상으로 면담한 결과, 자신의 자녀가 농인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자녀를 농학교에 보내지만 정작 농학교에 수화를 잘하는 선생님이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농아동의 수화교육을 위해 농학교 교사의 수화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위해 참여자(농인E)는 자연수화가 가능한 농수화 강사를 배출해야 한다고 하였고, 참여자(농인G)는 수화와 한국어가 모두 능통한 강사여야 함을 힘주어 이야기 하였다.

수화교육을 할 강사는 자연언어 소유자이거나 기본적인 수어학 과정을 이수한 농인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농인E)

수화와 한국어가 능통한 강사 배출이 필요합니다.....(농인G)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수화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농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알아봄으로써 농아동을 위한 수화 교육 접근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한정적이므로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농아동의 전 생애 기반을 둔 미래 설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농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한정적이었다는 결과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부모 면담을 실시한 선행연구에서 주장된 견해와 부합한다(곽정란 2010; 박미혜, 서용규, 2004; 박빛나, 조윤경, 2012). 즉 농 자녀를 둔 부모들은 청각장애 진단 이후 의료 측면 정보 외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부모들이 인공와우 외 다른 선택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뒤늦게 수화를 배우는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한 참여자의 이야기는 다양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부모들이 농아동의 잠재력과 그들의 진정한 요구를 고려하여 평생을 바라보는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청각장애를 처음으로 진단받는 그 순간부터 구어 외 다른 선택들이 고려될 수 있도록 농아동 교육과 관련된 다양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여자들은 청력검사 후 청각장애로 확정되었을 때 다양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제공시스템 도입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금처럼 수화에 대한 단편적인 소개만 되어있는 사이트가 아니라 수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예, 수화중심교육, 이중언어교육 등)가 구체적으로 한 눈에 보이도록 운용될 수 있는 사이트 구축을 요구하였다. Umansky(2008)는 실제 공공보건기관의 영유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조기 중재자(early interventionist)의 경험을 공개하였다. “때때로 내가 처음 아이와 부모를 만나게 되는 장소는 아이가 태어난 직후 병원이다. 장애가 판별되었을 때, 의료진과 사회복지사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부모를 교육하고 준비시키는 과정을 시작하려고 우리를 찾는다,.....,” (p. 22)고 기술한 바에 견주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체계적이고 평생을 계획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농 자녀를 둔 부모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이 먼저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영유아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과 한국농아인협회, 농학교 등이 함께 협력하고 연계할 수 있는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부모들 대부분이 농 자녀의 언어를 구어로 선택하고 구화중심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참여자들은 농당사자인 농아동의 의지와 상관없이 언어와 학교를 선택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게 대해 걱정하였다. 농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의 언어를 선택해주는 과정에서 주로 구어를 택하고, 선택한 언어인 구어에 맞춰 자녀를 교육하게 된다는 참여자의 진술은 농 자녀 부모의 언어선택 문제를 다룬 선행연구(곽정란, 2010; 곽정란 등 2011; 이한선, 김병하, 2003)에서 밝혀진 바와 유사하게 어린시기 농 자녀의 언어선택권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달려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현황에 대한 해결 과제로 농 자녀를 위한 부모들의 인식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부모들은 구화교육과 통합교육이 그들의 자녀에

게 실제적인 유익으로 돌아오길 원하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달랐다. 또한 초기 사회적 관계형성의 어려움(박빛나, 조운경, 2012), 농 정체성의 결여(최성규, 김수향, 2011), 통합교육환경에서의 소외와 배제(박동진, 2014) 및 청각장애학생의 역통합현상(김선애, 최성규, 2009)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렇다할만한 해결책은 아직 제시되지 못한 실정이다. 한 참여자는 구화에 치중된 부모 인식의 문제로 농아동들이 농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청인사회에도 농인사회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학생이 자신의 언어를 선택하고 구어이든 수화이든 농학생이 선택한 언어적 요구에 맞춰 교육해야 한다고 하였다. 교육의 목적이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지식, 기술, 태도, 가치관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란 사실과 농 자녀를 둔 부모들이 누구보다 더 그들의 농 자녀가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맘껏 발현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바란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 농아동의 참 행복에 무게중심을 둔다면, 직접적으로 수화교육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부모들에게 수화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수화교육을 설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또한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화 지위와 수화사용자의 권리문제에 관심을 갖고 수화와 관련된 언어정책과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수화와 관련된 언어정책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다. 농아동들이 수화기반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지원 시스템도 도입하여 더 이상 통합학교에서 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단지 들리지 않는 것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기를 희망해본다.

셋째, 농 자녀를 둔 부모들 스스로 수화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중문화-이중언어접근의 효과에 대한 근거 수집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중언어접근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견으로부터 연구에 기반한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대상자에 따른 이중언어프로그램 개발-적용-효과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강한 설득력을 가지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정보를 홍보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수화가 한국어를 익히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어 읽기에 동기를 주었고, 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참여자의 경험담은 수화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농아동을 위한 이중언어프로그램들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학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스페인의 이중언어실체를 분석한 Munoz-Baell 등(2011)의 연구에서 보듯이 전문가들의 의견일치가 높은 약점 요인으로 수화에 대한 공식적인 인식 결함을 들었다. 즉 이중언어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수화를 인정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스웨덴과 아이슬란드의 경우 이중언어교육프로그램을 법으로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체는 'deaf'가 아닌 'Deaf'관점에서 농인 문화와 농

인 언어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인식에 기초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최종적으로 위의 과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수화의 조기도입을 위한 수화습득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참여자들은 언어 습득과 언어 환경노출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농영유아교육 시, 지금보다는 빠른 시기에 수화가 도입되어 자연스런 맥락에서 수화를 익힐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초기 수화언어 습득을 위한 환경 제공을 강조한 원성옥 등(2013)의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특히 막상 매우 어린시기부터 농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도 이중언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없어서 보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한 참여자의 이야기로부터 수화의 조기 도입이 절실하게 요구됨을 엿볼 수 있다. 앞서 ‘농 자녀 부모의 언어선택에 따른 구화중심 교육’부분과 이러한 견해를 연결 지어 보면, 부모들이 행어나 음성언어 습득에 수화가 방해요소로 작용할까봐 자녀의 언어로 구화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수화는 음성언어습득에 해가 되지 않는다(예, Davidson, et al., 2014; Freel, Clark, Anderson, Gilbert, Musyoka & Hauser, 2011; Giezen, Baker & Escudero, 2014; Mayberry, Lock & Kazmi, 2002; Takala, et al., 2000)는 정보를 부모들에게 제공한다면 수화에 대한 부모 인식이 바뀔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인식변화는 참여자들이 강조한 수화의 조기 도입과 수화환경 구축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덴마크의 몇 학교의 경우 농성인 모델을 이중언어프로그램에 배치하고 있는 현황(Munoz-Baell, et al, 2011)과 농교사의 모델이 농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박동진, 2014)는 관점으로부터 통합어린이집과 연계한 거점 어린이집 운영 및 농성인 모델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참여자의 제안 또한 농아동의 수화습득환경에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농아동들을 위한 수화 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태어나면서부터 수화를 선택할 기회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고, 선택하더라도 조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으며, 농학교에서조차 구화로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원인은 참여자들이 말했듯이 농 자녀를 둔 부모들은 수화 인식이 매우 낮아, 수화는 언제라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부모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정도의 설득력 있는 수화교육의 강점에 대한 근거자료가 구축되어 있거나 이를 홍보하는 전문가들도 적다. 이를 위해 농 자녀를 둔 부모들이 농아동의 생애 기반을 근거로 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한국농아인협회, 농학교 등이 함께 협력하고 심사숙고하여 수화와 관련된 제도, 법,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이를 실행해가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치우친 정보가 아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농아동들을 위한 수화교육의 최상의 실체에 초석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미자, 강창욱 (2013). 장애유아의 평생계획에 대한 연구.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12(4), 1~30.
- 곽정란, 서영란, 이정옥 (2011). 농아동을 둔 농부모의 양육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언어선택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1), 329-349.
- 곽정란 (2010). 인공와우를 둘러싼 부모의 선택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2), 251-279.
- 권순우 (2004). 청각장애학생의 고등학교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사례 연구. **언어치료연구**, 13(2), 27-48.
- 권순우 (2010). 통합교육 환경에서 청각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언어치료연구**, 19(3), 133-153.
- 권재일, 윤병천, 김응범, 이미혜 (2009). **청각장애인의 언어 사용 실태 연구: 언어 사용 실태와 수화에 대한 청인의 인식**.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 서울.
- 김선애, 최성규 (2009). 청각장애아동 통합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4), 471-490.
- 박동진 (2014). 청각장애 청소년의 학교생활 경험에 관한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6(1), 279-299.
- 박미혜, 서용규 (2004). 청각장애아동의 인공와우 선택과 사용에 관한 실태 조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5(4), 363-387.
- 박빛나, 조윤경 (2012). 부모 면담을 통한 청각장애유아의 통합 실태와 요구. **특수교육**, 11(1), 33-57.
- 오인혜, 정은희 (2011). 청각장애인 가족 유형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경험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3(3), 409-439.
- 원성욱, 김경진, 허일 (2013). 청각장애학생 교육에서의 수화 적용 방안.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4(4), 113-132.
- 이수희, 우태영 (2008).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실천적 문제 중심 가정과 교육과정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분석.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0(3), 107-129.
- 이한선, 김병하 (2003). 청각장애자녀의 인공와우 착용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4(4), 205-220.
- 최성규 (2007). 우리나라 청각장애아동의 문해능력 신장을 위한 이중언어접근법의 모형 개발. **특수교육연구**, 14(1), 111-141.
- 최성규, 김수향 (2011). 통합교육환경 청각장애 청소년의 교육환경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 인식연구.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2(1), 47-68.
- Cummins, J. (1979). Linguistic interdependence and the educational development of bilingual childre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9(2), 222-51.
- Davidson, K., Lillo-Martin, D., & Chen-Pichler, D. (2014). Spoken English language

- development among native signing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19(2), 238-250.
- Evans, C. J. (2004). Literacy development in deaf students: Case studies in bilingual teaching and learning.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49(1), 17-27.
- Freel, B. L., Clark, M. D., Anderson, M. L., Gilbert, G. L., Musyoka, M. M., & Hauser, P. C. (2011). Deaf individuals' bilingual abilities: American Sign Language proficiency, reading skills. *Psychology*, 2(1), 18-23.
- Giezen, M., Baker, A. and Escudero, P. (2014). Relationships between spoken word and sign processing in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f Education*, 19(1), 107-125.
- Giezen, M. R., Baker, A. E., Escudero, P. (2014). Relationships between spoken word and sign processing in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19(1), 107-125.
- Greenbaum. T. L. (2001). **포커스 그룹 리서치**(이광숙 옮김). 서울: 박영률.
- Hermans, D., Ormel, E., & Knoors, H, (2010). On the relation between the signing and reading skills of deaf bilinguals.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13(2), 187-199.
- Kanto, L., Huttunen, K., & Laakso, M. L. (2013). Relationship between the linguistic environments and early bilingual language development of hearing children in Deaf-parented families.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18(2), 242-260.
- Krashen, S. (1982)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learning*. Oxford: Pergamon.
- Krueger, R. A. (1998). *Developing questions for focus group results*. Thousand Oaks, CA: Sage.
- Mayberry, R., Lock, E. & H. Kazmi (2002). Linguistic ability and early language exposure, *Nature*, 417, 38.
- Menéndez, B. (2010). Cross-modal bilingualism: Language contact as evidence of linguistic transfer in sign bilingual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13(2), 201-223.
- Mounty, J. L., Pucci, C. T., & Harmon, K. C. (2014). How deaf American Sign Language/English bilingual children become proficient readers: An emic perspective.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19(3), 333-346.
- Munoz-Baell, I. M., Alvarez-Dardet, C., Ruiz, M. T., Ortiz, R., Esteban, M. L., & Ferreiro, E. (2011). Understanding deaf bilingual education from the inside: a SWOT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15(9), 865-889.

- Rinaldi, P., Caselli, M. C., Renzo, A. D., Gulli, T., & Volterra, V. (2014). Sign Vocabulary in Deaf Toddlers Exposed to Sign Language Since Birth.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f Education*, 19(3), 303–318.
- Swanwick, R., & Tsverik, I. (2007). The role of sign language for deaf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Good practices in sign bilingual setting. *Deafness and Education International*, 9(4), 214–231.
- Takala, M., Kuusela, J., & Takala, E. (2000). “A good future for deaf children” : A five-year sign language intervention project.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45(4), 366–374.
- Trovato, S. (2013). A stronger reason for the right to sign languages. *Sign Language Studies*, 13(3), 401–422.
- Umansky, W. (2008). Introduction to you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In S. Hooper, & W. Umansky (Eds.), *You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5th ed., pp. 1–40).
- Xia, J. (2010). An anthropological emic-etic perspective on open access practices. *Journal of Documentation*, 67(1), 75–94.



## Current Status and Task of Sign Language Education for Deaf Children: Focusing on Deaf Perspectives

**Won, Seong Ok**

Dept. of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Welfare

**Kwon, Soon Woo**

Dept. of Special Education, Daegu University

**Kim, Ji Sook**

Dept. of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Welfare

**Kim, Sun You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yongji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the approaching direction of sign language education by studying current status of sign language education on the deaf cultural point of view. Six deaf people were joined the focus group interview for this study; who are living in Deagu, KougBuk, Seoul and Geyounggi area. The results were as follow; first of all, it need to design the future of deaf children about their whole life by providing various information because supplied information is too limited currently to parents of deaf children. Second, the most of parents are selecting oral language for main communicating method and to teach their children base on that. Therefore, it is demanded to change parent's mind for their deaf children. Third, it need to collect evidences about the efficacy of bicultural-bilingual approach and promote such a approach. Finally, it has to be build-up sign language learning condition for adopting sign language earlier.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it was discussed the approaching direction of sign language education for deaf children.

**Key Words** : deaf children, sign language education, bicultural-bilingual approach

---

논문 접수: 2014. 10. 25 심사 시작: 2014. 11. 10 게재 확정: 2014. 12. 10